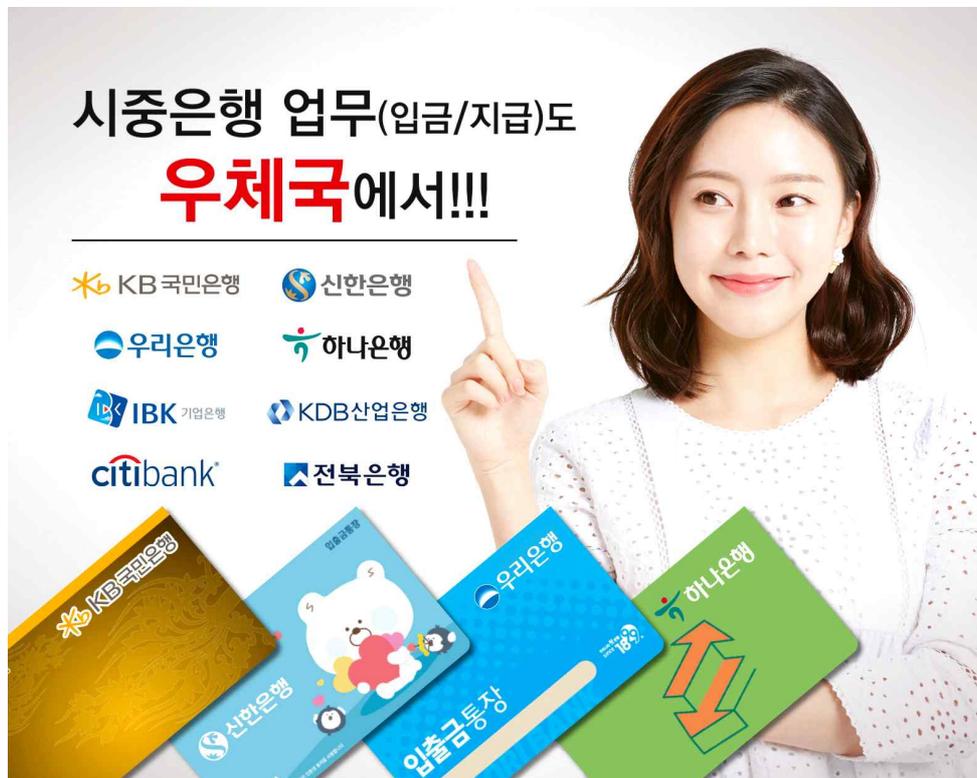


보도 일시	2022.11. 29.(화) 12:00 (2022. 11. 30.(수) 조간)	배포 일시	2022. 11. 29.(화) 08:00
담당 부서	예금사업단 예금사업과	책임자	과 장 신봉현 (044-200-8480)
		담당자	사무관 김진규 (044-200-8486)

##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고객도 우체국에서 업무가능 “우체국에서 시중은행 입·출금 하세요”

- 창구·ATM에서 별도 수수료 없이...비대면 취약계층 이용 편의 개선



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의 고객들은 30일부터 전국 2,500여개 우체국에서 별도 수수료 없이 입·출금, 조회 및 자동화기기(ATM)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풍부한 우체국 망을 시중은행에 개방해 인터넷 및 스마트뱅킹 등

비대면 취약계층과 시중은행의 금융 점포 축소로 인해 먼 곳에 있는 은행을 방문해야 했던 농·어촌 지역 고객의 금융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손승현)는 30일부터 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의 금융 업무를 우체국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가능 업무는 입금과 출금, 조회, ATM 서비스다.

코로나19 등에 따라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산되는 추세지만, 고령층에서는 단순 업무에 대해서도 여전히 은행의 대면 거래를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며, 시중은행의 점포망 축소가 지속됨에 따라 농·어촌 지역 등 금융서비스 소외 지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우정사업본부는 기업, 산업, 씨티, 전북은행 등과 업무제휴를 맺고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이번 4대 은행과의 제휴 추진으로 8개 은행 고객들은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해 추가 비용 없이 해당 은행의 기본적인 금융서비스를 우체국을 통해 제공 받을 수 있게 됐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6월 전국 우체국 창구를 통해 국민·신한·우리·하나 등 시중 4대 은행 입금·지급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로 업무협약을 맺고 시스템 연계 작업을 진행해왔으며, 지난 10월 말 우체국 통장과 시중은행 통장 모두 사용 가능한 통합 리더기를 개발·보급했다. 11월 말 거래정보 공유 및 정산 시스템 구축도 완료해, 30일 마침내 업무를 개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 업무는 우체국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전국 2,500개 우체국은 도시지역에 46.2%, 농·어촌 지역에는 53.8% 수준으로 분포돼 있다. 도시뿐만 아니라 지방 소규모 면 단위 지역까지 넓게 퍼져있어 지역주민과 고령층의 편리함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각 기관은 향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키로 했다.

손승현 우정사업본부장은 “국민이 365일 언제 어디서나 전국 우체국망을 활용해 입·출금 등 은행 업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우체국이 명실상부한 금융서비스 허브 기관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손 본부장은 또 “앞으로 국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정부 또는 민간기관 등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며 “국민 모두가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정부 기관으로서의 공적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담당 부서 <총괄>	예금사업단 예금사업과	책임자	과 장	신봉현 (044-200-8480)
		담당자	사무관	김진규 (044-200-8486)
<공동>	금융위원회 은행과	책임자	과 장	강영수 (02-2100-2950)
		담당자	사무관	권나림 (02-2100-2954)
<공동>	금융결제원 디지털금융부	책임자	부 장	유한상 (02-531-1800)
		담당자	팀 장	최윤영 (02-531-1830)
<공동>	은행연합회 디지털혁신부	책임자	부 장	김수연 (02-3705-5326)
		담당자	팀 장	정종우 (02-3705-5366)